

## 이바구 스튜디오 [부산경남 핫이슈] 해양금융종합센터 김호일 센터장

(KNN라디오 2019-02-20)

**[진행자]** :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써 10주년을 맞이했다는 이야기, 이번 주 월요일 전해드렸었죠.

그 속에서, 해양금융종합센터도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부산은 조선, 해운업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만큼,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센터장과 함께, 또다른 도약을 꿈꾸는 해양금융종합센터의 면면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김호일 해양금융종합센터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김호일 센터장]** : 영광된 자리이기도 한데요.

작년부터 수년간 계속 적어서 불황이었는데 7년만에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한 국내 조선해양업계가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행자]**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2014년 문을 열었는데요. 취임 후,

그 간의 운영상황을 많이 돌아보셨을 듯 합니다. 어떤 활동내용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호일 센터장]**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해양금융 데스크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공동 출범한 종합 해양금융 협의체입니다. 2014년 9월 공식 발족해 국내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운 등 종합적인 해양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개 기관 전문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기관별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해양금융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센터는 출범 후 4년간 총106척에 대한 공동금융을 주선했으며, 작년에는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해운 동반성장에 총 7,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 그 중,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다면요?

**[김호일 센터장]** : 센터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따로따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던 3개의 정책금융기관들이 합심하여 공동 지원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 기관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창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속된 해운시장 불황의 여파로 신조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는 해양금융에 대한 공동지원실적\* 이 다소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진행자]** :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셨을 걸로 압니다.

어떤 내용들을 계획중이신가요?

**[김호일 센터장]** : 우선 정부의 해운업 재건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 해운사가 경기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지원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친환경 선박 확충 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온라인 플랫폼 개발, 항만·터미널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행자]** : 한편 조선업계의 불황의 고리가, 쉽게 끊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의 합병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호일 센터장]**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운과 조선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IMO상에서 환경규제강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이 모두 조선 및 해양 산업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국내 조선업계가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및 신비즈니스 사업전략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업이 해양산업의 변화에 대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는 여러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포괄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 임기가 2020년 9월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혁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 아쉬움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만은 좀 해결하고 가겠다 혹은, 어떤 임기 후,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요?

**[김호일 센터장]**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문제는 국가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국내시중은행들도 과거에는 선박금융, RG발급 등 해양금융업무를 활발히 수행해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민간은행의 해양분야 금융규모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짧은 임기지만 임기내에 국내 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데스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 기반이 확대된다면 부산 지역에 있는 조선해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특히, 부산의 해양금융중심지 특화전략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센터는 매년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금융교육 및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 부산의 조선 해운업계가 다시 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기를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정 진행자